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최종 검토의견

2022. 7. 26.

< 목 차 >

I. 검토의견 요약 개요	3
II. IFRS S1 핵심주제별 검토의견	3
III. IFRS S2 핵심주제별 검토의견	10
붙임. 공개초안 질문사항별 최종 검토의견	15

I

검토의견 요약 개요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을 다음의 핵심주제별로 요약 및 정리함

기준	핵심주제
IFRS S1 일반 요구사항	① 전반적 구성 및 접근법 ② 중요성 판단 ③ 재무제표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효과 공시 ④ 보고기업 ⑤ 재무제표와 동시보고 ⑥ 정보의 위치 ⑦ 현지 법규상 공시금지 허용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① 기후 회복력 분석(시나리오 분석 또는 대체 기법) ② 산업전반 지표: Scope 3 배출량 공시 ③ 산업기반 지표(금융업):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공시 ④ 시행일 (IFRS S1과 S2 공통)

II

IFRS S1 핵심주제별 검토의견

- ① (전반적 구성 및 접근법) IFRS S1의 전반적 구성 및 접근법과 관련하여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 (용어의 정의 명확화) IFRS S1은 기업에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범위' 설명도 불분명하여 기업이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SASB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성 정의¹⁾와 지속가능성 범주 접근법²⁾을 활용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제안

- 1] '지속가능성'을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기업 활동으로 정의
- 2]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사업 모형 및 혁신, 리더십 및 지배구조라는 5개의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범주를 제시

- 또한, 기준 內 개념적이거나 포괄적 공시 요구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 및 예시 사례를 통해 제시할 필요

* (예) ①'유의적인'과 '중요한' 개념적 차이 ②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경우 연계성 판단지침이나 적용사례 제시 ③4가지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예시 제시

○ (다른 기준서와의 관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IFRS S1*이 IFRS S2를 포함하여 향후 제정될 다른 주제별 기준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예시 필요

* IFRS 회계기준의 '개념체계',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8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기반으로 구성

○ (기준의 구성 개선) 기업들은 주제별 기준이 완전하게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IFRS S1이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호소

- 따라서, IFRS S1은 일반사항, 표시 형식, 공시 식별 방법 등의 개념적 특성만을 제안하는 총론 형식의 기준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은 IFRS S2 같은 주제별 기준에서만 규정하도록 기준의 구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

- 또한, S1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IFRS 1 최초채택 기준에 상응하는 내용도 포함할 필요

② (중요성 판단)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의 우려사항 제시 및 추가지침 필요성 제안

○ (동적 중요성) IFRS S1에 따라 기업은 매 보고시점 별 중요성 판단에 대해 재평가 하며, 이로 인해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보고 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음

- IFRS S1 BC76에서 동적 중요성이라고도 언급한 이 개념은

기존에 회계정보 작성 시 적용되는 중요성의 개념과 적용방법이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

- **(중요성 판단기준 개선 필요)** 중요성 판단의 경우, IFRS 회계기준 (IAS 1)에서 제시하는 중요성의 정의와 일관되도록 정의하였으므로, 관련 실무지침(IFRS 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활용 할 수 있지만,

*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4단계의 과정**을 제시

- 일반적으로 재무정보의 중요성 판단에는 '양적 요소'를 활용 가능한 반면, 질적 정보 위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지침)이 수반될 필요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IFRS 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이 필요

- ③ **(재무제표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는 것에 대해 아래 박스의 우려사항 제시

- 그러나, 기업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양적정보가 필요하며, 예상영향에 대한 공시도 주요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 기업이 양적 정보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IFRS S2 등의 주제별 기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를 추가할 필요 제안

(1)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실현 가능성 관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인한 재무제표의 금액적 영향(예: 특정 자산손상 차손 중 지속가능성 위험에 기인한

부분)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존재

- 특히, 금액적 영향은 다양한 가정과 투입변수에 의해 영향 받는데, 이 중 지속가능성 관련 변수들만 고려하여 금액적 영향(비록, 범위 일지라도)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IFRS S2의 경우 기후 관련 충분한 계량적 변수나 가치평가 기법들이 존재하여 금액적 영향을 산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IFRS S1에서 이는 더욱 어려울 것임
- **(실무적 부담 관련)** 기업들이 양적 정보 생산을 위해 과도한 원가*가 수반될 수 있음
 - *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야 하며, 산출 정보를 위한 변수들을 식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또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해외 종속회사) 마련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
- 과도한 원가와 효익간의 균형은 기업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ISSB가 기준 제정 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할 것임

(2) 예상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예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미래 예측에 기반하며, 미래 예측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특히, 양적 정보)가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 이용자가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됨
- 또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예상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중장기에 대한 정보는 추정치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적 정보보다 질적 정보가 보다 더 유용할 수 있음
- 다만, 일부에서는 질적 정보에 대한 정보 유용성(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에 의문을 제기

④ **(보고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관련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연결기준)**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연계성 및 정보 유용성 측면의 효익 이외에도 기업의 실무적 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효익-연계성 측면)**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상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 함
 - **(효익-정보 유용성 측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보고기업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 내 함께 제시된 정보들이 서로 다른 보고기업에 대해 공시를 하게 되어 정보 유용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보고기업이 동일할 필요
 - **(비용-기업 실무적 부담 우려)** 해외에 종속기업이나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와 국가별로 존재하는 규제의 차이 (예: 유해물질에 대한 범위) 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
 - 동일한 보고기업 적용 관련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다음의 완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최초적용 시 유예기간 제공)** 최초적용 시 기업에게 적용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적용 부담을 완화
- * (예) 3년. 다만, 유예기간 동안에는 보고기업의 보고범위에 대해 주석으로 표기
- **(한시적 예외규정 제시)** 지속가능성 공시의 시행 초기인 만큼 각 국가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시
- **(가치사슬 경계 축소)** 한편, 현재 제시된 가치사슬의 정의가 폭넓어 실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일관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치사슬의 경계를 공급망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
 - 특히, 가치사슬 내 협력사에 포함되는 대다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ESG경영에 대한 대비가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협력사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관리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실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EU 지속가능성 실사법* 수준으로 거래관계의 **협력업체**로 특정하고, 협력업체 중 모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거래 규모 이상의 **‘주요 공급망’**으로 한정하는 **제한적 방안**도 제시

*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 및 가치사슬에 대한 인권, 환경 및 지배구조 관련 실사 의무 부여

⑤ (재무제표와 동시보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관련된 재무제표’의 동시보고 관련 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필요성 및 부담 완화 방안 제안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정보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재무제표 정보와 동일한 보고기간이어야 하며 동시에 **보고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
- **한국***의 경우, 동시보고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등의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

* 재무제표는 3월말까지 보고되지만,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행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7월 이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행하므로, 이를 3월말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

- 다만, 현행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재무제표 발행 이후 공개되는 것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각국의 공시 제도 및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 만일, 글로벌 문제로 확인된다면 ‘동시보고’ 대신 ‘**일정기간 내 보고**’로 문구를 수정하여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별로 자체적인 정책 수립을 통하여 기업들의 ‘동시보고’를 유도하는 접근법을 제안
- 또한, **일부 지표**(예: 금융배출량)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거나 다른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 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지표에 대해 **예외규정 제시***를 고려할 필요

* 전기 재무제표 정보 활용 허용 또는 동시보고 예외 허용 등

- 다만, ‘일반목적재무보고와 동시보고’ 지침은 기준서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각 국에서 정해야 할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

⑥ **(정보의 위치)** 일반목적재무보고 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다만, 한국의 경우 **법령상 정형화된 사업보고서의 존재**로 별도의 공시서식의 추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보고서에 포함 시)기업이 부담할 법적책임 등 **소송 위험** 우려가 높음
-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나 별도 서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

⑦ **(공시금지 허용)** 현지 법규상 공시금지를 허용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

- 법률 및 규제상의 금지 관련 요구사항이 특정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다음의 우려가 존재
- **(글로벌 기준선 접근법과 상충)** 글로벌 기준선의 개념은 ISSB의 공시기준을 기본적 요구사항으로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국제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해
- 그러나 이 조항은 ISSB 기준이 추구하는 글로벌 기준선 접근법 개념과 상충
- **(남용 가능성 존재)** ‘금지’라는 의미가 각국에서 ISSB 기준의 일부 요구사항들에 대해 **선택적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 美 SEC의 기후 공시 개정안에서는 **Scope 3**에 대한 공시를 모든 기업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데(중요한 경우에만 공시 및 중소기업은 공시 면제), 이 조항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ISSB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

-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전 세계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금지(탄소배출량, 목표치 등)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Ⅲ

IFRS S2 핵심주제별 검토의견

① (기후 회복력 분석) 기후 회복력 분석에 관한 요구사항(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또는 대체 기법)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및 개선방안 제안

- 기후 회복력 분석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시나리오 분석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설명, 예시가 제공될 필요
- 예를 들어,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문단 15 (2))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또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기업들은 틀에 박힌 문구(boilerplate)들이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분석과 사용된 가정 등을 기반으로 한 공시 사례 제시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
- 시나리오 분석의 대체 방법의 예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시 하였으나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나리오 분석의 대체적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TCFD의 시나리오 분석 가이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나리오 분석의 특별한 형태(Special types of Scenarios)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나리오 분석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시나리오 분석 수행을 위한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

- 기후관련 사항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 내부 역량으로 산출 및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 시 다양한 전문가 및 외부 평가기관 활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
- 또한, 외부 평가기관 활용 과정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별도지침도 함께 제시할 필요

② (산업전반 지표: Scope 3 배출량 공시) 모든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산업전반 지표에 Scope 3 절대 총 배출량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려 및 개선방안 제시

- Scope 3 배출량 산정은 상당한 기업 부담(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배출 위험관리 등)이 발생하므로, 산업전반 지표에의 포함 여부에 대해 각 국가별 공시 규제, 정보의 비용-효익 균형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ISSB의 기준 제정 방향성(주제별 기준에 산업기반 요구사항 통합) 및 Scope 3 정보 제공 관련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Scope 3 공시는 산업전반 지표에서 요구하지 않고 산업기반 요구사항에서 해당 정보가 중요한 산업에만 요구하는 것을 제안(SASB의 산업별 접근법*의 적용)
 - * ISSB 기준은 이미 SASB 기준에서 도출한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SASB의 산업별 접근법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특정 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비용-효익' 관점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근법
- IFRS S2의 부록 B 산업기반 요구사항에서 금융부문에는 Scope 3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산업에도 확대 적용 가능(예: 탄소 고배출군 산업을 지정하여 해당 산업 내 기업에 대하여만 Scope 3까지 공개)
- 한편, 기업마다 가치사슬의 범위가 상이하여 공시되는 Scope 3에 대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Scope 3 배출량에 포함되는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예: 특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공급망)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Scope3 배출량 포함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③ (산업기반 지표(금융업):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공시) 금융업에 요구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공시 관련 우려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관련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보다 더 상세하고 포괄적인 추가 검토가 진행될 필요
- 금융배출량 산출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체계 및 가중치 배정 방식에 있어 **단일의 최적의 방법론이 부재**하여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가 산출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며, 추정 방법론 및 사용되는 가정과 변수들의 차이로 인해 **비교가능성의 저하**도 예상됨
- 현재 제안되는 지침만으로는 기업에 정보 산출 관련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효익**(정보의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예상**
- 금융배출량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산출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공시하는 것이 아닌,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최종 정보 산출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 및 산출에 사용되는 가정, 투입변수, 변수의 수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
- 다만, 정보유용성 제고를 위하여 산출 과정에 대한 너무 세부적인 기준과 공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실무적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효익 효과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
- 다만, 금융배출량의 경우 **단일의 최적의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특정 방법론을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 대신, 실무적인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방법론(PCAF*등)**을 예시로 포함할 것을 제안

*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국제 이니셔티브(금융자산 분류 및 자산군별 배출량 산정식 제공)

④ **(시행일)** IFRS S1 및 S2 기준의 시행일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를 위해서는 기업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국가별 공시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
- 예를 들어,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TCFD 권고안의 자발적 적용을 준비하는데 상당기간(예: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이에 TCFD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IFRS S2 기준의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적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예: 약 3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만약,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공시되는 경우 자발적 공시보다 허위 기재와 관련된 소송 위험 등으로 인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해야 하며, 위험 및 시나리오 분석 등 기업의 자체적 시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기업의 관리비용의 부담을 포함하여 위험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IFRS S1은 IFRS S2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S2 보다 준비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 IFRS S1과 S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국내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비할 필요(예시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 공시 시스템 구축 및 통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연결기준의 보고기업 정보 산출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필요
- 공시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공급망의 중소기업의 참여까지 고려)
- 지배구조 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시간 필요(예: 이사 역량 강화)

- 법령 개정(예: 자본시장법 개정 등)
- 제도 개선(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배출량 인증 시기)

1. 공개초안 최종 검토의견 개요

- **(최종 검토의견 구성)**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서는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의 **정규절차** 과정을 통해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의견제출기관: 지속가능성공시기준자문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KB금융지주,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SK,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세종), 정부부처(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손해보험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CJ제일제당, 농협중앙회, DB손해보험

2.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질문사항 별 최종 검토의견

질문 1 - 전반적 접근법

공개초안은 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자원을 제공(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개초안의 제안들은 기업이 노출되는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material)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중요성 평가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a) 기업에 노출되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특정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식별 및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초안에서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b) 공개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제안된 요구사항이 제안된 목적(문단 1)을 충족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c)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요구사항이 [초안]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포함한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함께 어떻게 적용될 지가 명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제안의 어떠한 측면이 명확하지 않은가?

- (d)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요구사항이 기업이 본 제안을 준수하였는지를 감사인 및 규제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suitable basis)를 제공한다는데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접근법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a) 기업이 노출되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특정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식별 및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IFRS S1 공개초안 문단 2*에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문단2. 보고기업은 기업에 노출되는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한다...(후략)

- 다만, 해당 문단에서 사용하는 ‘유의적인’과 ‘중요한’이라는 용어 간에 어떠한 개념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중요한’과 달리 ‘유의적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초안 내 ‘유의적인’의 의미를 작성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

- ☐ (b) 동의함

- ☐ (c) IFRS S1이 IFRS S2를 포함한 향후 제정될 다른 기준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추가 지침이나 예시를 포함할 필요

- IFRS S1*은 기후(IFRS S2) 외 지속가능성 사안을 다루는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 IFRS 회계기준의 ‘개념체계’,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8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기반으로 함

- 따라서, IFRS S1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
다만, 요구사항들이 상세한 지침과 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다소 **개념적으로** 기술됨
- 특히, 기업이 관련 공시를 준비함에 있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성과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 질문6의 검토의견 참조 →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

- 또한, IFRS S1의 네 가지 핵심요소 중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지침은 IFRS S2 기준과 비교하여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이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이를 실제로 적용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기업들은 기후 관련 기준(IFRS S2) 외 주제별 기준이 모두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IFRS S1을 적용하여 공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호소
 - 이에 ISSB 기준의 국제적 도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FRS S1은 **개념적 특성만**을 제안(예: 일반사항, 표시형식 등)하는 **총론 형식**의 기준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은 별도의 주제별 기준들에서 규정하도록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구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
 - 또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IFRS 1 최초채택 기준에 상응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
- (d)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감사인 및 규제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할 필요
- 기준의 적용범위 → 질문3 검토의견 참고
 - 다루어야 하는 연계된 정보의 예시 → 질문6 검토의견 참고
 - 중요성 판단 → 질문8 검토의견 참고
 - 구체적인 측정방법

- 한편, ISSB는 IOSCO 또는 IAASB의 국제 감사 및 감독체계 구성과정에 긴밀히 관여 및 협력할 필요
- 기업별로 공시정보 품질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ISSB의 업무 범위는 아니지만 독립적이고 역량을 갖춘 기관이 공시 정보 및 공시 체계를 감사 또는 인증하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질문 2 - 목적 (문단 1-7)

공개초안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제안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기업가치는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와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 자금조달(finance)에 대한 접근성 및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을 고려한 현금흐름의 가치를 반영한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essential) 정보에는 재무제표 정보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포함된다.

주요 이용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보다 광범위하다. 기업은 노출된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전략에 대한 정보와 관련 재무제표의 인식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미래 유입(inflows) 및 유출(outflows)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기업과 사람, 지구전반 및 경제와의 관계, 영향, 의존성 또는 기업의 지식 기반 자산 개발과 같은 기업 활동의 결과로써 기업의 평판, 성과 및 전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개초안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중점을 둔다.

- (a) 제안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 목적이 명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정의(부록 A 참조)가 명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정의를 더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안은 무엇인지?

☐ (a) 공시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b)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개선할 필요

○ 부록 A에서의 정의와 함께 문단 6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보다 **광범위**하다고 언급하면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들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어느 범위까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모호**하여 작성자가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IFRS 기준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속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범위^{*1}**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관련 **예시^{*2}**도 명확히 개선할 필요

*1 문단6(2) '관련 재무제표의 인식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미래의 유입과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결정**'에서 '미래의 유입과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결정'의 의미가 불분명

*2 문단 6(4)의 기업의 지식기반 자산의 개발이 단순히 지식 기반 특허(Patent) 획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친환경 건축물(예: 그린 빌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ESG Value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명확성을 위해, SASB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지속가능성 **범주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

- SASB 기준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 ❶환경, ❷사회적 자본, ❸인적 자본, ❹사업 모형 및 혁신, ❺리더십 및 지배구조라는 5개의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범주를 제시

질문 3 - 적용범위 (문단 8-10)

공개초안의 제안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공시하는데 적용된다. 기업가치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범위가 아니다.

공개초안의 제안은 국가별 GAAP(IFRS 회계기준 또는 그 밖의

GAAP)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개발되었다.

공개초안의 제안들이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가별 GAAP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다음을 고려할 필요

-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가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함에 있어(문단22, 42~44) 국가별 또는 개별 국가 내에서도 **GAAP에 따른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동일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국가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에 차이가 발생(예: IFRS와 US-GAAP의 충당부채 차이)

- 한편, 문단 9에서는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1}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2}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개념적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1. 문단 4 이 기준서[초안]는 이용자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2. ...(전략)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에는 기업이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 또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예시***를 추가하여 **적용대상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

* (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예: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등 통제불가능한 사건)을 포함

- 특히, **반동효과(rebound effect)**를 고려할 때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

질문 4 - 핵심요소 (문단 11-35)

공개초안에는 주요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 운영방식의 핵심요소(core aspects)를 나타낸다.

이 접근법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재단이사회의 2020년 협의문서 내 성공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key requirements)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TCFD 작업물에 기반을 둔다.

지배구조

공개초안은 지배구조에 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전략

공개초안은 전략에 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위험관리

공개초안은 위험관리에 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러한 공시를 통해 이용자는 해당 과정이 기업 전체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기업 전체 위험 프로파일과 위험관리 과정을 평가할 수 있음

지표 및 목표

공개초안은 지표 및 목표에 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의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공시

를 통해 이용자는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진척을 포함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음

- (a)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 목적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기술된 공시 목적에 적합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공시 목적이 적절히 정의됨

☐ (b)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다음의 우려사항이 존재

① 전략에 대한 공시 목적은 이용자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¹⁾당기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²⁾단기·중기·장기에 걸친 예상 영향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공시를 요구(문단 15(b))
- 이 때, 양적 정보*를 공시할 수 없지 않는 한, 양적 정보를 공시

* 단일 금액 또는 범위 금액

(1)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실현 가능성 관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인한 재무제표의 금액적 영향(예: 특정 자산손상 차손 중 지속가능성 위험에 기인한 부분)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존재

- 특히, 금액적 영향은 다양한 가정과 투입변수에 의해 영향 받는데, 이 중 다른 변수들은 제외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변수들만 고려하여 금액적 영향(비록, 범위 일지라도)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IFRS S2의 경우 기후 관련 충분한 계량적 변수나 가치평가 기법들이 존재하여 금액적 영향을 산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IFRS S1에서 이는 더욱 어려울 것임

- **(실무적 부담 관련)** 기업들이 양적 정보 생산을 위해 **과도한 원가***가 수반될 수 있음

*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야 하며, 산출 정보를 위한 변수들을 식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또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해외 종속회사) 마련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

- 과도한 원가와 효익간의 균형은 기업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ISSB가 기준 제정 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할 것임

(2) 예상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예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미래 예측에 기반하며, 미래 예측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특히, 양적 정보)가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 이용자가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됨

- 또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예상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중장기에 대한 정보는 추정치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적 정보보다 질적 정보가 보다 더 유용할 수 있음

- 다만, 일부에서는 질적 정보에 대한 정보 유용성(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에 의문을 제기

- 그러나, 기업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양적정보가 필요하며, 예상영향에 대한 공시도 주요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에 동의

- 따라서, 기업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의 확보가 필요 (질문 13 참고)하며, IFRS S2와 같은 주제별 기준에서 상세 지침이나 사례를 추가할 필요

- ② 문단 22에서 기술된 '할 수 없지 않는 한(unless it is unable to do so)'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

- 대다수의 기업은 양적 정보 산출의 어려움,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양적 공시를 꺼려할 유인이 있으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반드시 필요
- 특히, 이 기준서의 문단 34 등과 IFRS 회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용어인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impracticable)*'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

*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IAS 8. 용어의 정의, 관련 문단 51~52)

질문 5 - 보고기업 (문단 37-41)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관련된 일반목적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개초안은 기업이 노출되는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 및 기회는 다음과 같은 가치사슬에 따른 활동, 상호작용, 관계 및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다.

- 해당 기업 및 공급업체의 고용 관행,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과 관련된 폐기물, 또는 해당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사건;
- 해당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 (예: 희소한 수자원에 의존하는 생산설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기업이 통제하는 투자(예: 공동기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활동 자금조달);
- 자금원

또한 공개초안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 (a)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관련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가치사슬에 따른 활동, 상호작용, 관계 및 자원의 사용과 관계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

면, 어떠한 추가적 요구사항이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c) 관련된 재무제표를 식별하기 위해 제안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기업의 입장에서 일부 우려 존재

- **(효익-연계성 측면)**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간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할 때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상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 함
- **(효익-정보 유용성 측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보고기업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 내 함께 제시된 정보들이 서로 다른 보고기업에 대해 공시를 하게 되어 정보 유용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보고기업이 동일할 필요
- **(비용-기업 실무적 부담 우려)** 해외에 종속기업이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물리적인 거리와 국가별로 존재하는 규제 차이(예: 유해물질에 대한 범위)로 인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해당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따라서, 공시 정보의 정확도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 중요성을 기반으로 공시 범위에 대한 합리적 설정이 필요
- **(제안)** 보고기업은 기존 공개초안의 제안과 동일하게 연결기업으로 하되,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최초 적용시^{*1}에는 유예기간^{*2}을 뒤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국가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제시할 필요

*1 질문1 검토의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ISSB 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기업을 위해 **IFRS 1 최초채택 기준**에 상응하는 관련 지침을 포함할 필요

*2 (예) 유예기간 동안에는 보고기업의 보고 범위에 대해 주석으로 표기

□ (b) **(가치사슬 경계 축소)** 가치사슬의 경계를 공급망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ISO2600 문단 2.22에서는 특정 경우에는 공급사슬이 가치사슬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언급

○ 현재 제시된 가치사슬의 정의가 폭넓어, 기업이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일관된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함

- 특히, 해외에 소재한 종속기업, 사업장의 관리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치사슬 내에 있는 협력사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관리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또한, 가치사슬 내 벤더 및 협력사인 대다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직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EU 지속가능성 실사법 수준으로 거래관계의 협력업체로 특정하고, 협력업체 중에서도 모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거래 규모 이상의 '주요 공급망'으로 한정하는 제한적 방안도 제시

□ (c) **(용어의 개념)** 문단 40(2)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과 문단40(3)의 기업이 통제하는 투자에서 사용하는 '통제(control)'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

- 통제가 IFRS 15에서의 통제의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

* IFRS 15에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질문 6 - 연계된 정보 (문단 42-44)

공개초안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에게 (a)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들 (b) 그러한 위험 및 기회들과 관련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그리고 (c)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의 다른 정보 간의 관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a)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들 간의 연계의 필요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정보와의 연계를 식별 및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제안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 **(추가 지침 및 예시 요구)** 추가적인 지침과 적용 사례를 제시할 필요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들 간의 **연계를 고려함에 있어, 다루어야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식별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 하나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영향을 공시하는 것인지** 등
- 연계된 정보의 예시에 대해 IFRS 회계기준(예: IFRS 10, IFRS 15 등)의 적용사례 같은 형태의 **다양한 예시의 제공도 고려할 필요**

☐ (a)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성 분석의 실효성)** 기업이 스스로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의 실효성 우려

* (예)기후변화는 '친환경 제품', '자원순환', '원산지 변화', '근로자 안전보건'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연계

☐ (b) 요구사항에 동의하나 설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과 적용 사례를 제시할 필요

- 재무정보와의 **연계**에 있어서, 연계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양적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적 정보만 공시해도 충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필요
- 또한, **연계된 정보** 요구사항과 핵심요소 중 **전략** 부분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문단22) 관련 요구사항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명확히 할 필요(BC에 이러한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 필요)

- (a)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예시의 제공도 고려할 필요

질문 7 - 공정한 표시 (문단 45-55)

공개초안은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기업에 노출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정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한 표시는 공개초안에서 정한 원칙(principles)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 시 추가적인 공시와 함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로 간주한다.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하여,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더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은 산업기반 SASB 기준의 공시주제, ISSB의 비강제적(non-mandatory) 지침(예: 물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체계 적용 지침) 및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른 기준제정기구들의 최신 발표 내용, 그리고 동종산업 또는 동일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지표를 포함하여, 기업에 노출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를 식별하기 위해서, 기업은 관련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한다.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공시기준이 없는 경우, 기업은 (a)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 요구와 관련되고, (b)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충실하게 나타내며 (c) 중립적인 공시를 식별하기 위해 판단을 해야 한다. 판단을 하는 경우,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상충(conflict)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 문단에서 식별한 동일 출처(sources)를 고려한다.

- (a) 정보의 통합(aggregation)을 포함하여, 기업에 노출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제안이 명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그리고 관련 공시를 식별하기 위한 지침의 출처(sources)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출처를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적(alternatives) 출처가 공개초안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제안된

목적과 어떻게 일관되는 지 설명해 달라

□ (a) 전반적으로 명확함

- **(통합 관련 정보의 특성)** 다만, 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예시가 필요
-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이 상쇄되는 경우나 기업 전체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할 수 있음

□ (b) 전반적으로 동의함

- 다만,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문단 51에서 열거하고 있는, IFRS 공시기준과 함께 고려하도록 제시된 기준을 기업이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만약, 기업이 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함에 있어 기업에 과도함 부담을 줄 수 있음
- 또한, 참조하는 기준에 따른 공시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참조 기준 적용 관련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ISSB S2 산업전반 지표 범주에서는 Scope1,2,3을 모두 요구하는 반면, SASB 철강 제조 산업기준 지표에서는 Scope1의 공시만을 요구

- 한편,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관련하여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기준제정기구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
- 문단 51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른 기준제정 기구의 최신 발표내용*을 언급

* 다중이해관계자에 초점을 둔 GRI와 같은 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문단 BC 31, 32, 76, 79에 따르면, 투자자 중심 공시 정보는

다중이해관계자(혹은 공공정책)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상당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IFRS재단이 CDSB 및 VRF와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함에 있어, 기준제정기구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기준내용을 **참고**하되, 이때 **IFRS S1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임**

BC 31 공개초안은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에 초점이 있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정보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강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는 보다 광범위한 다중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별도의 강조는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1) 재단이 투자자에 초점을 맞추는 공시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우려를 완화
- (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완적임을 확인

BC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완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유형은 유의적으로(significantly) 중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문단 BC76 참조).

BC 76 공개초안 제안이 승인되면 변경된 상황과 가정을 고려하여 매 보고일에 중요성 판단을 재평가해야 한다. 보고기업이 공시하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상황과 가정이 변경되고 중요성 판단과 일반 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기업가치 평가가 발전함에 따라 보고 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다. 이용자가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위험 및 기회는 보고 기간마다 달라질 수 있다. 공개 초안에는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동적 중요성'이라고 한다.

BC 79 ISSB 기준의 글로벌 기준선은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ISSB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관련 기준서를 적용하는 모든 기업이 이를 변경하도록 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사회와 관련된 정보가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투자자에게 목적적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 정책상의 이유로 요구되는 정보와 상당히(substantially)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질문 8 - 중요성 (문단 56-62)

공개초안은 ‘중요한 정보’를 IASB의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개념체계’ 및 IAS 1에서의 정의와 부합하도록 정의한다.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다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성격이 재무제표의 정보와 다르기 때문에, 중요성 판단은 다를 것이다. 정보가 중요한지는 기업가치와 관련하여 평가할 필요도 있다.

기업이 공시하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상황(circumstances) 및 가정이 변화하고 보고의 주요 이용자의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보고기간 별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중요성을 식별하기 위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중요성 판단은 매 보고일마다 재평가된다. 공개초안은 특정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특정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결과 정보(resulting information)가 중요하지 않다면 해당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요구사항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정보를 공시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접근법은 IAS 1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현지 법규가 기업의 특정 정보 공시를 금지한다면 공개초안이 요구하는 정보이더라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다. 이 경우 공시되지 않은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제한의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 (a)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맥락에서 중요성의 정의 및 적용이 명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제안된 중요성의 정의 및 적용이 시간 경과를 포함하여 특정 기업의 기업가치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폭넓은 범위를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c) 공개초안 및 관련 예시지침(illustrative guidance)이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식별하는 데 유용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추가 지침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d) 현지 법규에서 기업이 특정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공개초안이 요구하는 정보더라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전반적으로 명확하다는데 동의함

○ 국가별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중요성의 개념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중요성을 정의하는 것에 동의

- 다만, 기준에서 사용하는 ‘**유의적인**’과 ‘**중요한**’이라는 용어 간에 개념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만약 동일한 개념이라면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개념이라면 이를 설명할 것을 제안

□ (b)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실무 적용에 있어 다음의 우려사항 존재

- **(동적 중요성)** IFRS S1 결론도출근거 문단76에서 명시된 동적 중요성 개념은 매 보고시점마다 중요성 판단에 대해 재평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보고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음**
- 이는 기존에 재무정보 작성 시 적용되는 중요성의 개념과는 적용 방법이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
- **(산업 전반지표와의 관계)** IFRS S2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7가지의 산업 전반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특정 기업이 산업 전반지표 중 일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산업과 관계없이 기업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전반지표의 공시 취지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성 판단과 산업 전반지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

□ (c) 현재 공개초안 예시지침(illustrative guidance)의 내용은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 **(추가 지침 필요)** IFRS S1의 중요성 판단의 경우, IAS 1에서 제시하는 중요성의 정의와 일관되도록 정의하였으므로, 관련 실무지침(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활용 가능할 수 있지만,

- *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4단계의 과정**을 제시

구분	설명
1단계-식별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을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식별
2단계-평가	1단계에서 식별된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지 양적 요소* 와 질적 요소* 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 * 수익, 수익성, 재무 상태 비율, 현금흐름 등 * 기업 특유요소 (예: 거래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예상치 못한 변화나 추세의 변동)와 외부 요소 (예: 기업의 지리적 위치, 산업부문, 경제 상태) 모두 고려
3단계-정리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중요한 항목을 통합하는 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표시하여 이해 가능성을 높임
4단계-검토	정보가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재평가 하고,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검토

- 일반적으로 재무정보의 중요성 판단에는 '양적 요소'를 활용 가능한 반면, 질적 정보 위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지침)이 수반될 필요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이 필요
- **(중요성 평가 공시)** 중요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지침)이 제시된다면, 기업이 중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 양적·질적 요소 등 **중요성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공시 요구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임
- 문단 BC 66에서는 중요성 평가에 대한 공시가 틀에 박힌(boiler plate) 문구가 될 우려가 있어, 식별한 산업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수행한

중요성 평가에 대해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언급

BC 66 의장과 부의장은 기업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식별한 산업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수행한 중요성 평가에 대해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이 해당 산업의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지표를 중요성만 조건으로 공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할 것이다. 공개 초안은 중요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공시가 틀에 박힌 문구가(boiler plate)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지 않았다.

- 그러나, 중요성 평가 시 기업 특유의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요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지침)이 제시된다면, 틀에 박힌 공시가 될 가능성은 적음
- 또한, 기후 외의 다른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과 기업이 중요한 관련 지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예, 누락)도 존재하므로,
- 이를 고려할 때 문단 BC 66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이 식별한 산업을 공시하는 것(문단 55)만으로는 이용자가 기업이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기 어려움
- 식별한 산업의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성 판단을 이해한다는 것은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에 한정해서만 적용 가능한 접근법임
- 한편, 다음 세부 사안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필요
 - **(가능성 및 영향력 고려방안)** 문단 57*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가능성과 영향력을 같이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
 - * [문단 57]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중략)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결과를 갖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재평가 관련 추가 지침)** 상황·가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중요성 재평가 시에도 최초 평가 시와 비교하여 추가로 고려할 점이 있는지 등도 예시지침에 명확히 하여 반영할 필요

□ (d) 추가적인 분석 및 검토가 요구됨

- 법률 및 규제상의 금지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특정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
- 일부에서는 국가별 법규를 모두 고려하여 ISSB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므로, ISSB 기준을 적시성을 위하여 공개 초안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비록 기준의 일부는 아니지만 예시지침의 문단 IG9*에서 기술된 현지 법률 및 규제의 '허용(permit)' 관련 설명을 고려하여, 본 공개초안 문단 62에서 기술된 현지 법률 및 규제상의 '금지(prohibit)' 관련 요구사항이 전달하고 자하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IG9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의 준수를 명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법규가 이를 허용하더라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 보다 적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62 현지 법규가 기업의 정보 공시를 금지한다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달리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 공시되지 않은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고 제한의 원천을 설명한다.

- 본사 소재지 국가와 해외 사업장간 적용되는 법규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할 필요
- 또한, 이에 대해 다음의 우려사항도 존재
- ❶ (글로벌 기준선 접근법과 상충)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❶투자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이며, ❷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국가별 요구사항들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임
- 글로벌 기준선이라는 개념은 ISSB의 공시기준을 기본 요구사항으로 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 조항은 ISSB 기준이 추구하는 글로벌 기준선 접근법 (최소한의 요구사항) 개념과 상충

② (남용 가능성 존재) '금지'라는 의미가 각국에서 ISSB 기준의 일부 요구사항들에 대해 선택적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 미 SEC의 기후 공시 개정안에서는 Scope 3에 대한 공시를 모든 기업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데(중요한 경우에만 공시 및 중소기업은 공시 면제),
- 문단 62를 적용하여 관련 미국 기업들이 ISSB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
-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전 세계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금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질문 9 - 보고빈도 (문단 66-71)

공개초안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동시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재무제표의 보고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관련된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전반적으로 동의함

-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재무보고와 동일한 보고기간이어야 하며, 동시에 보고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
- 다만, 기업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1}과 제도 개선^{*2} 등의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에 각국의 공시 제도 및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1. 국내의 경우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는 의무적으로 3월말까지 공시되지만,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자료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대개 GRI기준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작성)는 대체로 7월 이후(한국거래소에 자율 공시된 제출일 기반)에 제출되고 있음

*2.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부로부터 4월 이후 배출량을 인증받음

- 만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재무보고와 '동시보고' 대신 '일정기간 내 보고'로 기준 자체를 수정하여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자체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동시보고'를 유도하는 접근법을 제안
- **(예외 규정 신설)** 한편, 일부 지표(예: 금융회사의 Scope3 등)의 경우 재무결산이 선행되거나 관련 기업이 정보를 취합하여야 정보 측정 및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지표의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보고시기와 다를 수 있음을 허용하고 이를 주석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

질문 10 - 정보의 위치 (문단 72-78)

공개초안은 해당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서, 즉, 투자자와 다른 금융자본의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보고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정보를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업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특정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의 특정한 위치에 제공하도록 의도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와 같은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와 동일한 위치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그러한 추가 정보에 의해 공시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상호참조(cross-referenced)되는 정보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면,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상호참조로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관련 재무제표에 공시될 수 있다.

또한 공개초안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공통 정보 항목의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a)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위치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위치에 대한 본 제안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공개초안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하는 국가별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c)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상호참조되는 정보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면, 상호참조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d) 기업이 개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지배구조, 전략 및 위험관리의 각 측면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관련 지속가능성 사안이 동일한 접근법 및/또는 통합된 방식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 통합 공시를 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 명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다음 사안을 추가로 제안함

- 지속가능성 재무공시의 목적과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용자가 일반목적재무보고 하에서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
- 다만, 국내의 경우 **법령상** 정형화된 사업보고서(일반목적재무보고)의 존재로 **별도의 공시 서식의 추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감기업 의무제출 기업보고서에 포함 시) 기업이 부담할 **법적책임 등 소송위험 우려가 높음**
- 일반목적재무보고뿐만 아니라 별도 서식 중 목적적합성·표현충실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

☐ (b) 한국의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서(사업보고서) 내에 포함되는 내용과 서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 (c) 동의함

○ 다만, '동일한 조건(on the same terms)'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 IAS 34 '중간재무보고'에서도 이용자가 다른 보고서를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IAS 34에서의 '동일한 조건'은 참조된 자료의 접근과 관련된 의미임

[참고] IAS 34 BC10

BC10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IASB는 상호참조에 의해 포함되는 주석이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참조된 자료에 접근할 때 참조를 한 재무제표에 접근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동일한 조건'이 IAS 34와 같이 자료에의 접근과 관련된 것인지 (일반목적재무보고내의 자료만 상호참조 가능하단 의미인지) 명확히 할 필요

□ (d) 전반적으로 명확함

질문 11 - 비교정보 (문단 63-65), 추정 및 결과불확실성의 원천 (문단 79-83), 그리고 오류(문단 84-90)

공개초안에서는 비교정보,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 오류에 대해 제안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은 IAS 1 및 IAS 8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응되는 개념(corresponding concepts)에 기반을 둔다. 다만, 공개초안에서는 추정치의 변경(change in estimate)을 당기 공시의 일부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된 추정치(updated estimates)를 반영하는 비교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즉, 더 나은 추정치를 반영하기 위해 비교정보를 재작성(restated)한다.

또한,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재무데이터 및 가정이 가능한 정도까지(to the extent possible) 기업의 재무제표에 사용된 재무데이터 및 가정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제안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a)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이 제안에서 적절하게 변경되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가?
- (b) 전기에 보고한 지표의 더 나은 측정치(measure)가 있다면, 수정된 지표를 비교정보에 공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 (c)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재무데이터 및 가정이 가능한 정도까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사용된 관련 재무데이터 및 가정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circumstances)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a) 공개초안의 추정^{*1}과 오류수정^{*2}에 대한 개념은 IAS 8과 다르지 않음

*1. 추정: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의 개념 (IFRS S1 문단 89)

*2. 오류수정: 산술적 계산오류, 지표 및 목표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 포함(IFRS S1 문단 86)

○ 다만, IAS 8에서는 측정기준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고 있는 반면, 현재 공개초안에서는 측정기준의 변경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언급하지 않음

- 측정기준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

-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새로운 측정방법의 개발 및 적용) 외에는 측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

□ (b) 전반적으로 동의함

○ 추정치가 갱신된 경우 과거 정보도 소급하여 이용자가 갱신된 추정치를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

○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 정보를 다시 산출 및 수집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 부담이 존재하며, 과거 정보의 빈번한 재작성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c) 동의함

-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재무데이터 및 가정과 일관되어야 함
- 다만, '가능한 정도(to the extent possible)'가 어느 수준인지를 명확히 기술할 필요*하며,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공정가치나 지분상품 손상 추정 시 고려하는 가정의 기간(가령, 통상 5년~10년)과 단/중/장기 예상 영향을 추정 시 사용하는 가정(30년)의 기간에는 time horizon 차이가 있어, 이러한 가정을 일치시킬수록 왜곡가능성이 존재

- 또한, 가능한 정도가 공개초안의 다른 요구사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1' 또는 '할 수 있는 경우(unless it is unable to do so)*2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

*1.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IAS 8. 용어의 정의, 관련 문단 51~52)

*2. IFRS S1 문단22

- 용어들이 **같은**(또는 거의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요구사항별 동일한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기준에 대한 번역이 필요한 비영어권 국가에서 기준을 적용 및 해석하는데 용이

질문 12 - 준수 문구 (문단 91-92)

공개초안은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초안의 제안과 적용 가능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기업은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완화(relief)를 제안한다. 국가별 법률 및 규정이 특정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해당 제안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에 동의

- 다만, 준수 여부의 독립적인 검증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국가별 법률 및 규정이 특정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

질문 13 - 시행일 (부록 B)

공개초안은 기업이 ISSB가 정하는 시행일 이전에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준의 적시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연도에는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요구사항의 완화를 제안한다.

- (a) ISSB가 시행일을 정할 때, 최종 기준이 공표된 이후 어느 정도의 (기업의 준비) 기간이 요구되는가? 본 제안을 적용하는 기업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활용하는 기업 등에게 요구되는 준비사항(preparation)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specific information)를 포함하여, 해당 답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 (b) ISSB가 적용 최초 연도에는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완화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를 위해서는 기업의 준비뿐만 아니라 국가별 공시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IFRS S2 질문 14 참조)

- 공시 시스템 구축 및 통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질문 9 참조

- 연결기준의 보고기업 정보 산출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필요

- 공시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공급망의 중소기업의 참여까지 고려)
- 지배구조 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시간 필요(예: 이사 역량 강화)
- 법령 개정(예: 사업보고서 내용 및 서식 등에 대한 개정)*

* 질문 10의 (b) 참조

- 제도 개선(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배출량 인증 시기)*

* 질문 9 참조

□ (b) 동의함

- 과거 IFRS 회계기준 도입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국가별 GAAP을 활용하여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비교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음
- 반면, 지속가능성 기준의 경우, 기존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초의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최초연도에는 완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

질문 14 - 글로벌 기준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effects)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규제 당국 및 국가를 포함한 다른 기구들이 정한 요구사항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ISSB는 다른 기구들에 의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의해 설정된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에 기반을 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공개초안의 특정 부분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해당 부

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신 제안하고자 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질문 8 (d) 참고

질문 15 - 디지털 보고

ISSB는 업무의 시작부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디지털 소비(digital consumption)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할 계획이다. 종이 기반의 소비와 비교하여, 디지털 소비의 주요 이점은 접근성의 향상을 통해 정보의 추출과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디지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IFRS재단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택사노미(taxonomy)를 개발 중에 있다. 공개초안 및 IFRS S2 기 후 관련 공시 기준은 해당 택사노미의 원천이 된다.

택사노미에 대한 스태프 초안(staff draft)은 이 공개초안의 발표 직후 (shortly after)에 발표될 예정이며, 택사노미의 필수 제안의 개요 (overview)를 포함하는 스태프 문서(staff paper)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에 ISSB는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위해 택사노미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사노미 및 디지털 보고(예: 디지털 태그 지정이 어려울 수 있는 특정 공시 요구사항)의 개발을 촉진하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제안이 있는가?

☐ 별도의 의견 없음

질문 16 - 비용, 효익 및 가능한 효과

ISSB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이행(implement)하는 것이 비용과 효익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a) ISSB가 이러한 제안의 가능한 효과(likely effect)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안 이행의 가능한 효익 및 비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 (b) ISSB가 고려해야 할 제안의 지속적인(ongoing) 적용 비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 ☐ (a)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예상되는 **효익-비용**은 다음과 같음
- **(효익)**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 **(비용)** 기업이 이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
 - 업종별, 개별 기업의 상황이 모두 달라 기업 스스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을 판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유의성 식별, 분석, 정보연계성 확인 등에 **과도한 업무원가**가 발생
 - 예를 들어 기업 스스로가 지속가능성 대상을 정할 경우 발생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게 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분 모두가 비용(업무원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 (b)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변화된 지속가능성의 **판별, 분석** 등은 지속(ongoing) 비용 요인으로 작용

질문 17 - 기타 의견

공개초안에 명시된 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가?

(1) 글로벌 기준선 관련

- ☐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선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각국 **감독당국**들과 긴밀히 **협업**할 필요
- EU 및 영국의 경우 ISSB 기준을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위한 기준선으로 사용 계획
 - 미국 SEC는 기후 관련 일부 지표에 대해 적용대상 및 중요성 판단에 따른 선택적 공시를 허용
 - 특히, ISSB는 G7 선진국 이외에도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등 G20 국가

들의 자본시장 당국들의 의견을 듣고 협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

(2) IFRS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활용 관련

- 회계기준서 상에서 적용할 당시에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표현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공개초안에서도 다수 활용(예: 동일 조건 (same terms), 실무적으로 불가능한(impracticable) 등)됨
 - 동일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공시의 맥락(context) 및 상황(circumstance)이 다르므로, 해당 용어들의 정의 및 적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할 필요

(3) IFRS S1의 적용 관련 우려

- IFRS S1의 경우, 개념체계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IAS 1 재무제표 표시 및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기반으로 고안된 기준으로,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기업은 IFRS S1의 일반사항(general features)에서 정보의 위치, 보고빈도 및 보고기업과 같은 요구사항들도 특정 주제 관련 기준인 IFRS S2와 함께 준비하여야 함
 - 특히 IFRS S1은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 기업은 기후(IFRS S2) 이외의 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스스로 식별해야 함
 - 이로 인해, 기업이 이를 실무에 적용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부담 가중이 우려 됨

3. IFRS S1 기후 관련 공시 질문사항 별 최종 검토의견

질문 1 - 공개초안의 목적

공개초안의 문단 1은 제안된 목적을 제시한다. 기업은 기업의 일반 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된다.

- 기업가치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에 대한 평가;
- 기업의 자원 사용과 해당하는 투입물, 활동, 산출물 및 결과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및 전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계획, 사업 모형 및 운영을 조정하는 기업의 능력을 평가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21-22는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공개초안에서 설정한 목적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b) 해당 목적이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가치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 (c) 공개초안에 명시된 공시 요구사항이 문단 1에 설명된 목적을 충족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c) 별도의 의견 없음

질문 2 - 지배구조

공개초안의 문단 4와 5는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초안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위원회 또는 지배구조를 담당하는 이와 동등한 기구를 포함)에 대한 정보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지배구조 공시 요구사항은 TCFD 권고안을 기반

으로 하고 있지만, 공개초안은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후 관련 지배구조 및 관리의 일부 측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공시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공개초안은 기업에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이 기업의 위임사항, 이사회 권한 및 그 밖의 관련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 TCFD 권고안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기술하는 것이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57-63은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이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감독과 통합 관리되는 경우에는 **통합적인 공시를 허용**(문단 6)하고 있음
 - 이는 기후 외에 다른 지속가능성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될 사항에 해당
 - 따라서 이를 주제별 기준에서 반복하여 요구하기 보다는 IFRS S1에서 일반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통합적인 지배구조 공시**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예: 통합 원칙, 통합 방법, 통합 공시 사례 등)을 제시할 것을 고려할 필요
 - 이를 통해 IFRS S1과 IFRS S2(및 다른 주제별 기준서)간의 중복 공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소수 의견으로써 IFRS S1 내에서만 통합적인 지배구조 공시를 위한 지침을 다루는 것은 정보 접근의 효율성을 저해함을 우려
 - 또한, 기업별로 **통합 수준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희석되거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이 통합되어 공시될 경우 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고려될 필요
 - 특히, 기준서 주제별(예: 기후관련) 지배구조에 대한 별도의 책임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공시를 요구할 필요

질문 3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공개초안의 문단 9는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기업의 자본조달에 대한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기간(time horizon)의 설명을 식별 및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9(1)에 기술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기업은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부록 B)에서 정의된 공시주제(disclosure topics)를 참조해야 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64-65는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을 식별하고 공시하기 위해 제안된 요구사항이 충분히 명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및 설명에서 공시주제(산업기반 요구사항에서 정의)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 공시의 목적적합성 및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공시의 목적적합성 및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b) 충분히 명확하며, 전반적으로 동의함

- 광범위한 범주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중 유의적인 사안을 식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부록B)의 공시주제를 활용하는 것은 식별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
- 다만, 산업기반 요구사항에서 정의하는 공시주제도 산업별로 다수 존재하므로, 산업전반 요구사항과 산업별 공시주제들의 요구사항을 기업이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산출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

- 한편, 산업기반 요구사항(SASB 공시주제)이 산업별 기후에 대한 위험 사항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

질문 4 - 기업 가치사슬 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집중

공개초안 문단 12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가치사슬을 포함하여 기업의 사업모형에 미치는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시를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공시 요구사항은 측정 과제(measurement challenges)(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 및 신뢰 가능한 지리적 특정 정보의 가용성 관련)와 이용자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공개초안은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질적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 이 제안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유의적인 위험 및 기회가 어디에 집중되어(concentrated) 있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66-68은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대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에 대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기업의 집중에 대해 요구되는 공시가 양적(quantitative)이기보다 질적(qualitative)이어야 한다면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안을 추천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 전반적으로 동의함

☐ (b)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적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안

- 가치사슬 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집중과 관련하여 질적 정보에

중점을 둘 경우, 다소 틀에 박힌 문구가 기술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ISSB의 전반적 접근법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적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양적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

질문 5 - 전환계획 및 탄소상쇄(carbon offsets)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계획을 공시하는 것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탈탄소 관련(decarbonisation-related)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현재 및 계획된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공개초안 문단 13은 기업의 전환계획에 대한 다양한 공시를 제안한다. 공개초안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전환계획을 포함한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탄소상쇄(carbon offsets)의 사용에 관한 정보 포함)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 기존 자산에 대한 계획 및 주요 가정, 기업이 이전에 공시한 계획의 진척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가 포함된다.

탄소상쇄에 대한 기업의 의존, 기업이 사용하는 탄소상쇄를 산출하는 방법, 기업이 탄소상쇄를 얻는 계획의 신뢰성 및 진실성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개초안은 기업의 배출목표 달성에 탄소상쇄의 사용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제안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배출량 감소에 대한 기업의 계획, 탄소상쇄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 및 해당 탄소상쇄의 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공개초안은 기업이 해당 상쇄의 탄소제거(자연 또는 기술 기반) 근거 및 상쇄에 대한 제 삼자의 검증 또는 인증 계획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탄소상쇄는 배출회피(avoided emissions)에 기반을 둘 수 있다. 배출회피는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거나 기준선과 비교할 때,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낮은 미래 배출량이다. 기업의 기후 관련 전략에서 배출회피 접근법은 기업의 배출-인벤토리 회계 및 배출 감축 전환목표를 보완하지만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공개초안은 달성한 탄소상쇄량이 탄소제거 또는 배출회피에 의한 것인지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개초안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상쇄의 영구성 가정에 대한 정보와 같이 기업이 사용하는 상쇄의 신뢰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유의적인 요소를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71-85는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전환계획에 대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전환계획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추가 공시 요구사항(또는 일부 제안 중 필수적이지 않은 요구사항)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해당 공시를 설명하고 왜 그러한 공시가 필수적인지(또는 필수적이지 않은지) 기술하십시오.
- (c) 제안된 탄소상쇄 공시를 통해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배출감축에 대한 기업의 접근법, 탄소상쇄가 수행하는 역할 및 그러한 탄소상쇄의 신뢰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d) 제안된 탄소상쇄 요구사항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배출감축에 대한 기업의 접근법, 탄소상쇄가 수행하는 역할 및 그러한 탄소상쇄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공시와 작성 비용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 (b) 동의함

☐ (c)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기업에게 요구하는 탄소상쇄 정보에 대한 범위가 다소 불분명

- 예를 들어, 탄소상쇄가 강제적 성격을 띠는 크레딧(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 체제, 및 공동이행 제도)만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크레딧거래(마케팅 또는 홍보성)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경계 설정이 필요
- 특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탄소상쇄를 위한 탄소크레딧의 인증, 출처,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므로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수적

- 구체적으로 탄소상쇄에 사용된 탄소크레딧의 출처(생산 또는 구매 경로), 해당 탄소크레딧의 인증기관 등 해당 기업의 탄소상쇄 현황에 대한 필요정보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제안할 필요

- 탄소상쇄에 대한 정의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기술 필요*

* CDP 작성안내서(guidance)에 따르면, ISSB가 요구하는 탄소상쇄에 대한 정보를 탄소가격시스템(Carbon pricing)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배출권 거래제, 탄소세)를 제공

□ (d) 별도의 의견 없음

질문 6 - 현재 및 예상 효과

공개초안은 기업이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예상되는 미래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공개초안은 그러한 정보가 양적으로 제공된다면 단일 값 또는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범위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이 기업에 대한 금액적 영향(monetised effect)과 연관된 잠재적 결과의 유의적인 차이(variance)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반면, 결과가 더 확실하다면, 단일 가치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TCFD의 2021년 현황 보고서(status report)는 TCFD 권고안을 활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의 공시를 공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로 식별하였다. 과제에는 조직적 일치(alignment)의 어려움, 데이터, 위험 평가 및 재무적 계정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 사업 기간과 비교하여 보다 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후와 관련된 기간; 그리고 해당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승인의 확보가 포함된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진다. 재무적 영향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조합(combination)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후 관련 공시의 목적을 위하여 분리할 수 없다.(예를 들어, 어떠한 자산의 가치가 위험하다 간주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기후의 영향을 다른 위험들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TRWG의 회원들도 일부 작성자들과의 논의 이후 기후 관련 공시 시안을 개발할 때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 결과(climate outcomes) 및 특정 기업에의 해당 결과의 영향 모두가 불확실성의 수준으로 인하여, 단일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결과적으로, 공개초안의 제안들은 예상되는 금액적 영향(monetary effects)을 범위 또는 단일 추정치로 공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후 관련 사안이 현재 및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이러한 과제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공개초안은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친 기대효과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포함(문단 14)) 또한 이 요구사항은 기업이 정보를 양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 경우 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를 제외하고는, 양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잠재적 측정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96-100은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예상 효과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본 제안에 동의하는가(문단 14 참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c)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 ~ (c) 현재 및 예상 효과에 대한 양적정보의 정의 및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요구사항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인지,

‘간접적인’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 해당 양적 및 질적 정보가 무엇인지 관련 예시를 제시할 필요
-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예: 고려해야 하는 재무적 영향의 범위,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의미 명확화 등)이 필요
- “기업이 정보를 **양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상세한 판단근거, 예시 및 지침이 필요(IFRS S1의 검토의견과도 연계)
- ‘신뢰할 수 있는’ 양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실무적인 측정 과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 다만, 다른 지속가능성 사안들에 비해 기후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들이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도 있음

질문 7 - 기후 회복력(resilience)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가능성, 크기, 그리고 시기는 종종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는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전략(사업모형 포함)의 회복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개초안 문단 15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 분석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다음 사항들에 중점을 둔다.

- 기업의 의사결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분석 결과; 그리고
- 다음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는지 여부;
 -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또는
 - 대체 기법

시나리오 분석은 기업과 투자자가 사업모형, 전략,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tool)로서 점점 더 잘 정착중이다. TCFD의 작업물은 투자자들이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되는 가정과 분석 결과가 기업의 전략 및 위험관리 의사결정 및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TCFD는 투자자가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했는지 여부 포함)에 대한 기업의 전략, 사업모형, 미래현금흐름의 회복력의 결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업 이사회 위원회(특히 감사 및 위험)는 각기 다른 기후 결과와 해당 영향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기업 특유의 기후 관련 위험을 위험 매핑에 포함시킬 것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이지만, 사업, 특히 개별 기업 수준에서, 그리고 여러 부문들에 걸쳐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의 적용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추출물 및 광물 처리와 같은 일부 부문은 수년간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해 왔으나, 소비재 또는 기술 및 통신과 같은 다른 부문들은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이제 막 모색하기 시작했다.

많은 기업들은 위험관리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엄격한 데이터 및 관행이 개발된 곳에서 기업은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적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의 적용은 여전히 발전 중이다.

작성자는 시나리오 분석이 산출하는 정보의 추론적 특성, 그러한 정보의 공시(또는 잘못된 의사소통)와 관련된 잠재적 법적 책임, 데이터 가용성 및 기업의 전략에 대한 기밀정보의 공시를 포함하여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된 그 밖의 과제 및 우려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고려하고 다양한 변수를 명시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시나리오 분석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위험관리 과정에 대한 투입물로서 매우 유용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의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공개초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방법 또는 기법을 사용하여 기후 회복력을 평가해야 한다.

기업의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재 다수의 작성자-특히 일부 부문에서는-관점에서 어려운 요청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안된 요구사항은 질적 분석, 단일 수치 예측, 민감도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회복력 평가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수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작성자에게 면제를 제공하여, 공식적인 시나리오 분석 및 관련 공시가 자원집약적

일 수 있고, 반복적인 학습과정을 나타내며, 달성을 위해 여러 계획 주기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및 기회)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을 이해하기 위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우선적인 선택권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결과적으로 공개초안은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이 해당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개초안의 다른 제안들보다 시행일이 늦은 모든 기업에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하게 하는지도 고려하였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86-95는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문단 15(a)에 열거된 항목들이 기업 전략의 기후 회복력에 대해 이용자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b) 공개초안은 기업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나리오 분석 대신 대체적인 방법 또는 기법(예를 들어, 질적 분석, 단일 수치 예측, 민감도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을 사용하여 전략의 기후 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i) 해당 제안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ii)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전략의 기후 회복력을 평가할 수 없는 기업이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iii) 또는, 모든 기업이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해야만 하는가? 강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는 질문 14(c)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c) 기업의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제안된 공시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d) 기업 전략의 기후 회복력 평가에 사용되는 대체 기법(예를 들어, 질적 분석, 단일 수치 예측, 민감도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제안된 공시에 동의하는가?

(e)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비용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에 대한 정보로부터의 효익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권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 (c)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 및 설명, 예시가 수반될 필요

- 예를 들어,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문단 15 (2))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시나리오 분석 및 대체 기법에 대한 요건을 너무 간략하게 제시했을 경우 의사결정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너무 상세하게 제시될 경우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 또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기업들은 틀에 박힌 문구(boilerplate)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현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분석과 분석에 사용된 가정 등을 기반으로 한 공시 사례 제시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

□ (b), (d) 전반적으로 동의함. 다만, (b) 질문과 관련하여,

- 시나리오 분석의 대체적 방법의 하나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시(BC94 및 질문에서 예시로 제시, 다만, 본문(문단 15(b)(ii)(1)에서는 예시로 기술하지 않음)하였으나,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나리오 분석의 대체적 방법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함

- TCFD의 시나리오 분석 가이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나리오 분석의 특별한 형태(Special types of Scenarios)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나리오 분석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e) 시나리오 분석 수행을 위한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

- 기후관련 사항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 내부 역량으로 산출 및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 시 외부 평가기관 의뢰로 인한 비용이 발생
- 특히, IFRS 17에서 적용된 특정 산업 및 기업으로 이슈를 한정된 시나리오 분석과 달리,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관련 사항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
-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별도의 지침도 함께 제시할 필요

질문 8 - 위험관리

공개초안의 목적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시에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뿐만 아니라, 기후 관련 기회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도 포함된다.

공개초안 문단 16 및 17은 현재 기후 관련 위험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TCFD 권고안을 넘어, 위험관리에 관한 공시의 소관(remit)을 확대한다. 이 제안은 위험 및 기회가 동일한 불확실성의 원천과 관련되거나 원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과, 식별, 평가, 우선순위 부여 및 대응을 위한 과정에 점점 더 많은 기회를 포함하는 위험관리의 일반적 관행의 발전을 반영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01-104는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위험관리 과정에 대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변경을 권고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다음에 대한 개선이 필요

- ① 문단17(5)와 (6)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체 위험관리 과정’ 및 ‘전반적인 관리 과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 예를 들어, 전체 위험관리 과정이 기업의 전사적인 위험관리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위험관리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또한, 공시 측면에서 보면 현재 IFRS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credit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과 같은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 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하게 되는 위험관리 체계 역시 이러한 금융위험에 대한 공시 사항임
→ 기후(및 다른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위험관리 과정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험 공시와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

② **기회의 식별, 평가 및 우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 또는 절차를 위한 관련 지침(문단 17(3))이 상당히 미흡(위험 관련 지침과 비교하여)하여, 기업이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③ 문단 18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통합되어 관리**되는 경우, 별도의 공시가 아닌 통합적인 공시를 수행할 것을 예시으로써 제안하고 있는데, 관련 예시가 개념을 중복하여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

④ 위험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이 **위험의 유형**을 식별하고 이를 공시할 것을 제안

- 위험의 유형(적법성, 규제, 기술, 시장 등)*을 식별하고 공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 역량을 이해할 수 있게 함

* 예: CDP 질의서(questionnaire)는 위험 유형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요청

질문 9 - 산업전반 지표 범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초안은 산업에 관계없이 보고기업 간 공시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TCFD의 산업전반 지표와 지표 범주의 개념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공개초안의 제안은 특정 산업 또는 부문(중요성에 따른)에 관계없이 본 지표 및 지표 범주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안하면서 TCFD의 판단기준(criteria)을 고려하였다. 해당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의 지표 및 지표 범주를 식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기본적 측면 및 동인을 나타낸다;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 기후 보고 체계, 대출 기관(lenders), 투자자, 보험업체 및 지역 및 국가별 공시 요구사항에 의해 광범위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공개초안은 모든 기업이 공시해야 할 일곱 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를 제안한다. 절대치 및 집약도 기반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위한 자본배치(capital deployment), 내부 탄소 가격, 그리고 기후 관련 고려사항과 연계된 경영진 보수 비율. 공개초안은 GHG 배출량 측정에 GHG 프로토콜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GHG 프로토콜은 Scope 1,2,3의 계산에 포함되는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기업이 다양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예를 들어, 관계기업과 같은 비연결대상 기업의 배출량이 포함되는 방법을 포함.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GHG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다른 기업에 동일한 투자를 하는 두 기업이 GHG 프로토콜을 적용할 때 내린 선택에 의해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GHG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HG 프로토콜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초안에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 다음 대상에 대한 별도의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 연결실체(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 연결실체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 그리고

- 연결실체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에 대한 배출량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된 접근법(예를 들어,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의 지분할당 접근법 또는 운영통제 접근법)

Scope 3 GHG 배출량의 공시에는 데이터 가용성, 추정치의 사용, 산출 방법론 및 기타 불확실성 원천과 관련된 수많은 과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한 GHG 배출량의 공시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모든 부문 및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Scope 3 배출량이 대부분의 기업들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에서 단연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위험 분석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많은 산업 내 기업들은 가치사슬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모두에서 Scope 3 배출을 일으키는 활동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제품 설계(전환 위험)를 통해 발전하고 점점 엄격해지는 에너지효율 표준(energy efficiency standards)을 다루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포착하거나, 업스트림 배출 감축(기후 관련 기회)을 활성화하거나 장려할 필요가 있다. Scope 3 데이터는 이러한 특정 위험 및 기회 동인과 관련된 산업 지표와 결합하여, 기업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적응하는 정도를 이용자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cope 3 GHG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기업과 투자자가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가장 유의적인 GHG 감축 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투입변수, 활동 및 산출물에 관한 전략적 및 운영상 의사결정을 알릴 수 있다.

Scope 3 배출량에 대하여, 공개초안은 다음을 제안한다.

- 기업은 Scope 3 배출량 측정에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배출량을 포함해야 한다.
- 기업은 Scope 3 배출량 측정치 내에 포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공시해야 하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Scope 3 배출량이 보고된 배출량에 포함되었거나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만일 기업이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제공된 배출량 정보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포함한다면, 측정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 만일 기업이 그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외하는 경우, 해당

배출량을 누락한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측정치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GHG 배출량 범주 외에, 다른 산업전반 지표 범주는 공개초안에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다만, 공개초안은 각 산업전반 지표 범주별로 기업에 대한 비강제적인 예시지침(illustrative guidance)을 포함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05-118은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산업전반 요구사항은 부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공통의 핵심(common set of core) 공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 및 사업모형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유용성을 포함하여 제안된 일곱 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b) 산업전반 비교와 기업가치 평가를 촉진하는 데 유용한 추가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산업전반 지표 범주가 있는가(또는 유용하지 않은 일부 범주는)?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공시사항을 기술하고,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에게 유용하거나 또는 유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
- (c) 기업이 Scope 1, Scope 2 및 Scope 3 배출량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GHG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방법론을 허용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d) Scope 1, Scope 2 및 Scope 3에 대한 모든 일곱 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톤(CO₂ equivalent)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또는 Scope 1, Scope 2 및 Scope 3 배출에 대한 공시를 온실가스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해야 하는가?(예를 들어, 메탄(CH₄)을 이산화질소(NO₂)와 별도로 공시)
- (e) 다음 사항에 대해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 (i) 연결실체; 그리고
 - (ii)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계열사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f) 중요성에 따라, 모든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산업전반 지표 범주로서 Scope 3 절대 총 배출량을 포함하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c), (e) 공개초안의 제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d) 전반적으로 동의함

- 기존의 방법론이 이미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유용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며, 온실가스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비용-효익 관점에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다만, 美 SEC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함에 있어 GHG 프로토콜 이외의 방법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IFRS S2에서도 기업이 GHG 프로토콜 이외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한편, GHG 프로토콜에서는 Scope 1, 2를 측정함에 있어 지분할당 접근법, 운용통제 접근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어,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방법론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

☐ (f)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다음의 사항을 검토 및 제안

- Scope 3 배출량 산정은 상당한 기업 부담(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정보 산출 체계 구축, 내부 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각 국가별 공시 규제, 정보의 비용-효익 균형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현재 ISSB의 기준 제정 방향성(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체계) 및 Scope 3의 정보 제공 관련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SASB의 산업별 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
- ISSB 기준은 SASB 기준에서 도출한 산업기반 공시요구사항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SASB의 산업별 접근법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특정 산업에 '중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비용-효익'관점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근법임

- 즉, 동일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Scope 3의 경우 산업기반의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일 수 있음
(예: 금융 산업의 Scope 3에 해당하는 financed emission 추가하는 접근법을 다른 산업에도 적용, 탄소 고배출군 산업을 지정하여 해당 산업의 기업에 대하여만 Scope 3 까지 공개)
- 또한, Scope 3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Scope 1-3의 규모 및 비율이 다르므로, **Scope 1-3 중 산업별로 중요한 배출량 정보 중심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
- 한편, 기업마다 가치사슬의 범위가 상이하여 공시되는 Scope 3에 대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하 시키므로, **Scope 3 배출량에 포함되는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예: 특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공급망)

질문 10 - 목표(target)

공개초안 문단 23은 배출량 감축 목표의 목적(예를 들어, 완화, 적응, 또는 부문 또는 과학기반 이니셔티브들에 부합)을 포함한 해당 목표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목표가 기후변화 관련 최신 국제 협정에 규정된 목표와 어떻게 비교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회원국들 간의 최신 협정으로 정의된다. UNFCCC에 따라 체결된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준(norms) 및 목표를 설정했다. 공개초안 발행 시점의 가장 최근 협정은 파리협정(2016.4월)이다. 파리협정의 서명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고,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이 대체될 때까지, 기업이 자신의 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와 어느 정도 비교되는 지를 공시할 때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를 참조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은 유효하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19-122는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제안된 공시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b)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 국제 협정'에 대해 제안된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 전반적으로 동의함

- 추가로, 기후 관련 목표가 부재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게는 관련 목표가 부재한 이유 및/또는 향후 계획을 공시 하도록 할 필요

☐ (b) 제안된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다는 데 동의함

질문 11 - 산업기반 요구사항

공개초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는 부록 B의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산업기반이므로, 일부만이 특정 기업에 적용된다. 이 요구사항은 SASB 기준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ISSB에게 기존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체계를 기반으로 구축하도록 권고한 재단이사회의 2020년 지속가능성에 관한 협의에 대한 응답과 일관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TRWG의 기후 관련 공시 시안과도 일관된다.

제안된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은 대응되는 SASB 기준의 요구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개초안에 포함된 요구사항에는 기존 SASB 기준과 관련된 일부 선별된 개정사항(targeted amendments)이 포함된다. 제안된 개선 사항은 TRWG 기후 관련 공시 시안이 발표된 이후 개발되었다.

첫 번째 제안된 변경사항은 국가별 규제 및 기준을 인용한 지표의 하위집합(subset)의 국제 적용가능성(international applicability)을 다룬다. 이 경우, 공개초안은 국제 기준 및 정의,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국가별 지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개정(SASB 기준과 관련된)을 제안한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0-148은 산업기반 요구사항의 국제 적용가

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a) 지침의 명확성을 낮추거나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국가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SASB 기준을 개정하는 본 접근방식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b) 산업 공시 요구사항 하위집합의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c) 제안된 개정안이 과거기간에 SASB 기준을 사용하던 기업이 과거기간의 동등한 공시와 일관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SASB 기준과 관련하여 제안된 두 번째 변경사항은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및 촉진 배출량(financed or facilitated emissions)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다룬다. 이를 위해, 공개초안은 4가지 산업(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 자산관리)에 공시주제와 관련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된 요구사항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및 촉진 배출량과 관련된 자금대여, 인수 및/또는 투자 활동과 관련된다. 본 제안은 Category 15(투자)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계산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는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Scope 3)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49-172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및 촉진 배출량에 대한 공개초안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 (d)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및 촉진 배출량에 대해 제안된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또는 Scope 3(Category 15(투자) 포함)에 대한 산업전반 요구사항이 적절한 공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e) 제안에서 상업은행 및 보험사를 '탄소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것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분류에 포함해야 할 또 다른 산업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f) 절대량 및 집약치 기반의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을 모두 공시하라는 제안된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g) 금융배출량 산출에 사용되는 방법론의 공시를 요구하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h) ISSB가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예를 들어,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금융 산업을 위한 Global GHG 회계 및 보고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Scope 3) 회계 및 보고를 사용하여 금융배출량을 위한 제안된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신 어떤 방법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i)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제안에서, 관리 대상 총 자산과 관련된 금융배출량의 공시는 기업의 간접적인 전환 위험 노출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제안된 산업기반 접근법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기업이 관련된 기초적인 경제활동, 기업의 사업이 의존하거나 기업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개초안은 SASB 기준에서 파생된 산업기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SASB 기준은 기업이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를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 10년에 걸친 엄격하고 투명한 정규절차를 통해 독립적인 기준제정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과정의 결과로 특정 산업에서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공시주제)를 식별하고 정의한다. 또한 그들은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해당 공시주제에 대해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화된 지표들을 설정한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23-129는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공개초안의 제안의 근거를 설명한다.

부록 B의 산업기반 요구사항은 공개초안에 필수적인 부분(integral part)이며 요구사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는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문단 BC49-BC52 참조)과 같은 공개초안

내 다른 요구사항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j) 제안된 산업기반 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k)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는 추가적인 산업기반 요구사항이 있는가(또는 제안된 것 중에 그렇지 않은 사항)? 만약 그렇다면, 해당 공시를 설명하고 왜 해당 사항이 필요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해 달라
- (l) 산업 분류가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가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해당 요구사항이 적용될 활동을 정의하는 산업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a)~(c)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함

- 다만, 이 과정에서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리거나 정보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사안에 대해 주의할 필요

☐ (d)~(i)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및 촉진 배출량 관련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보다 더 상세하고 포괄적인 추가 검토가 진행될 필요

- **(적은 효익)** 근본적으로 금융배출량 산출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체계 및 가중치 배정방식에 있어 단일의 최적의 방법론이 부재하여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가 산출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추정 방법론 및 사용되는 가정/변수들의 차이로 인해 비교가능성의 저하도 예상됨

- 현재 제안되는 지침만으로는 기업에 정보 산출 관련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효익(정보의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예상

- 따라서 금융배출량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산출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공시하는 것이 아닌,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최종 정보 산출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 및 산출에 사용되는 가정/투입변수/변수의 수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

- **(과도한 비용 우려)** 그러나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하여 산출 과정에 대한 너무 세부적인 기준과 공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반대로 실무적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효익 예상 효과 역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

- 한편, 금융배출량의 경우 단일의 최적의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특정 방법론을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 (j)~(l)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향후 기준제정의 구조 및 방향성에 있어** 다음을 고려할 필요

- 현재 공개초안은 산업전반 요구사항과 산업기반 요구사항을 특정 주제(기후) 기준에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이로 인해, ISSB는 향후 기준제정 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주제별 기준에 산업기반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제정해야 해서 **하나의 주제별 기준에 너무 많은 요구사항**(산업전반 및 77개 산업별 기준)이 **포함됨**(특히, 모든 주제별 기준이 본문 보다는 산업기반 기준을 다루는 부록 부분이 기준서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됨)

- 기업은 모든 주제별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산업별로 자신이 적용해야 하는 요구사항도 식별해야 하므로 기준의 **적용가능성이 낮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어떠한 사안이 또는 관련 어떠한 요구사항이 자신이 속한 기업과 관련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개념적 특성과 표시 기준의 성격을 지닌 IFRS S1 이외에는 주제별로 기준서를 구성하기 보다는 **SASB 기준의 체계에 따라 산업별로 기준서를 구성하여 각 산업별 기준 내에 ❶산업전반 요구사항과**

② 해당 산업의 주요 **공시주제**(중요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별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기준을 제정하면, 기업 입장에서 기준의 적용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

질문 12 - 비용, 효익 및 예상 효과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6-48은 공개초안의 제안을 이행하는 것이 비용과 효익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하고 있다.

- (a) ISSB가 이러한 제안의 가능한 효과(likely effect)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안 이행의 가능한 효익 및 비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 (b) ISSB가 고려해야 할 제안의 지속적인(ongoing) 적용 비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 (c) 공개초안에 포함된 공시 요구사항 중 그로 인한 효익이 해당 정보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b) 별도의 의견 없음

☐ (c) 산업 전반 지표 범주에 대한 일부 공시 요구사항의 경우, 그 효익에 비해 기업 측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도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가 존재

- 예를 들어, Scope 3 관련 지표의 경우, 그 효익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산업 내지 기업들이 존재(질문 9 - 검토의견 참조)
- 또는 기후 민감도가 낮은 기업인 경우, 정보 생성 비용이 효익보다 클 가능성 존재

질문 13 -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및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문단 C21-24는 검증가능성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설명한다. 검증가능성은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정보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다는 확신

(confidence)을 주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 불가능한 정보보다 검증 가능한 정보가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더 유용하다.

만약 정보 자체 또는 정보 도출에 사용된 투입변수(input)를 확증(corroborate)할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검증가능하다. 검증가능성은 다양한 식견이 있고 독립적인 관찰자가 특정 묘사가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에, 비록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인 및 규제기관이 검증하거나 집행해야(또는 검증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할 특정 과제를 제시하는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이 있는가? 만약 과제를 제시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경우, 경영자의 판단, 예측 정보 및 추정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증가능^{*1}하고 집행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기 상당한 어려움^{*2}이 있으나,

*1 검증가능한 정보는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검증가능성이 부족한 경우 정보가 반드시 유용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나,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2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다수의 미래전망치는 '직접' 검증할 수 없음

- ISSB 기준의 전반적인 공시 요구사항*은 정보의 신뢰성 및 유용성과 제공되는 정보의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갖추고 있음

* (예) 기후 회복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관련 평가를 위해 사용한 시나리오, 해당 시나리오 사용 이유, 사용한 가정 및 변수 등 공시 요구

- 그러나, 질문 11(d)~(i)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요구사항에서는 여전히 정보의 신뢰성 및 검증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또한, 검증 및 인증 별도의 인증 관련 기준 및 지침과 각국의 주요 감독기구에서 설정하더라도, ISSB가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업 및 논의를 수행하여 ISSB 기준에 의한 공시정보의 신뢰성 및 검증가능성을 제고할 방안을 수립할 필요

질문 14 - 시행일

공개초안은 일부 기업이 사용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통합보고 체계(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부는 적용 첫 해에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급법(retrospective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별로 소급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공개초안의 제안을 적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최초 적용 기간에 비교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음을 제안한다.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은 공개초안과 함께 적용된다. 공개초안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하위 집합(subset)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작성자에게 과제(challenges)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90-194는 공개초안의 제안 이면에 있는 이유(reasoning)를 설명한다.

- (a) 공개초안의 시행일이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의 시행일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b) ISSB가 시행일을 정할 때, 최종 기준의 발표 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공개초안의 제안을 적용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답변의 이유는 무엇인가?
- (c) 기업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특정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다른 공시 요구사항보다 일찍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지배구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기업 전략의 회복력과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보다 더 일찍 적용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요구사항이 더 일찍 적용가능하며, 공개초안의 일부 요구사항이 다른 요구사항보다 더 일찍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a) IFRS S1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적절함

- IFRS S1의 시행 없이, IFRS S2만 우선 시행할 경우 IFRS S1의 개념적

요소를 포함한 일반사항을 고려할 수 없어 적용가능성이 낮아짐

□ (b)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TCFD 권고안의 자발적 적용을 준비하는데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답하였으며, 이에 TCFD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IFRS S2 기준의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적용의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의무사항으로 법정공시서류인 사업보고서* 내 공시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와 관련된 소송 위험 등으로 인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해야 하며 위험 및 시나리오 분석 등 기업의 자체적 시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기업의 관리비용의 부담을 포함하여 위험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공시되는 예시

□ (c) 기준 내 공시 요구사항 별로 시행일을 달리 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특정 공시 요구사항에 경우 시스템 구축 및 공시 대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요구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질문 15 - 디지털 보고

ISSB는 업무의 시작부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디지털 소비(digital consumption)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할 계획이다. 종이 기반의 소비와 비교하여, 디지털 소비의 주요 이점은 접근성의 향상을 통해 정보의 추출과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디지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IFRS재단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택사노미(taxonomy)를 개발 중에 있다. 공개초안 및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해당 택사노미의 원천이 된다.

택사노미에 대한 스태프 초안(staff draft)은 공개초안의 발표 직후(shortly after)에 발표될 예정이며, 택사노미의 필수 제안의 개요

(overview)를 포함하는 스태프 문서(staff paper)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에 ISSB는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위해 택사노미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사노미 및 디지털 보고(예: 디지털 태그 지정이 어려울 수 있는 특정 공시 요구사항)의 개발을 촉진하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제안이 있는가?

☐ 별도의 의견 없음

질문 16 - 글로벌 기준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effects)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규제당국 및 국가를 포함한 다른 기구들이 정한 요구사항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ISSB는 다른 기구들에 의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의해 설정된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에 기반을 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공개초안의 특정 부분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해당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신 제안하고자 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IFRS S1 질문 14 검토의견 참조

질문 17 - 기타 의견

공개초안에 명시된 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가?

☐ 국내 법령 및 규제와의 상호연관성 관련 검토

- 국내 기후 관련 법령 및 규제* 요구사항과 공개초안이 제안하는 요구사항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필요

* 환경부 소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동일 법률 내 규정)

- 특히, 공개초안이 관련 국내 법령 및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포괄하는지를 검토*¹하고, 향후 서로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²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

*1 국내 법령 및 규제의 경우,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정보 외 공개초안의 산업전반 지표에서 요구하는 기후 관련 기회, 보상과 같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를 다루지 않음. 전략 및 목표와 관련된 지표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포함(예: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되어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자율공시 항목임

*2 환경부 소관의 법률들은 기업이 **외부로 미치는 기후적 영향에 초점**을 둔 양적 정보를 산출하게 하나 **재무적 연계성을 고려한 정보를 산출하지는 않으므로**, IFRS S2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의 **투입변수**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